

獨逸 聯邦軍의 新計劃

李 泰 烈 (譯)



▲ 독일 공군의 ALPHA JET 항공기
현재 近接 空中支援(CAS)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임무는 육군에서 맡게 될 것이다.

32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독일연방군에게 있어, 1987년은 종합적인 구조의 재조정을 하는 방향을 설정한 해로서 향후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계획들이 독일연방군 방위위원회(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에서 준비하여온 것과 같이, 그리고 軍

참모들이 구체화한 방식과 같이 집행되어진다면 독일연방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구조와 임무의 분산을 2000년대에 갖게 될 것이다.

자금과 인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현재의 새로운 계획은 모든형태의 전투능력을 갖을 수 있는 軍으로서 독일연방군

을 최적화하고, 또한 각군으로서 보다는 총체적으로 독일연방군을 최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군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을 것이다. 최신의 방법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정찰, 지휘 및 통제체계는 무기배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禁忌로 되어있는 것도 과격히 배제될 것이며, 중복적인 일들도 제거될 것이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2-3년전에 계획된 것보다는 적은비용이 소요되어야만 된다.

軍 참모에 의해 지시된 독일연방군의 현재의 再計劃은 가장 종합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독일정부의 21세기 재정계획(1988-1991년의 기간 포함)내에서 방위를 위하여 계획된 매우 낮은 자금에 대한 단순한 해결방안의 성격보다는 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2년간 방위를 위해 가용한 자금은 1982년에 집권하게된 새로운 保守·自由 연합정부의 의도와 公約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못하였다.

1984년 독일연방군의 軍備 계획의 재검토는 낙관적인 수치를 기초한 것이었다. 지난해 독일연방군의 계획과 정부의

재정계획간의 차이는 15년의 기간동안에 개략적으로 200억 DM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부족한 수준으로까지 증대되었다.

이와같은 차이로 인하여 2000년대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발전될것을 고려하여 1986년에 전반적인 계획의 기본적인 재평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연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은 즉시 수정되지 않았다. 결국 선거전에 제약이 수반된 계획을 발표하여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반대당의 비평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1988년 독일연방군계획은 적은부분의 수정과 함께 1986년 12월에 통과되었다.

1987년 12월에 통과된 차기 독일군 연방계획(1989년 독일연방군계획; 1987~2001년간의 15년계획)은 새로운 의회

기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획이 될 것이며, 독일연방군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될 것이다.

능률의 저하를 해결하고 재래식장비의 축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는 것이 이계획의 다른 측면이다.

장기계획은 부가적으로 불확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계획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독일연방군계획은 무엇보다도 충분하게 독일연방군을 활용하고 그 구조를 미래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물자계획은 우선순위에서 이 목표 다음에 오게 되어있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은 이와같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하고, 人員과 財源이 부족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독일 공군은
EFA 사업을
支援하고 있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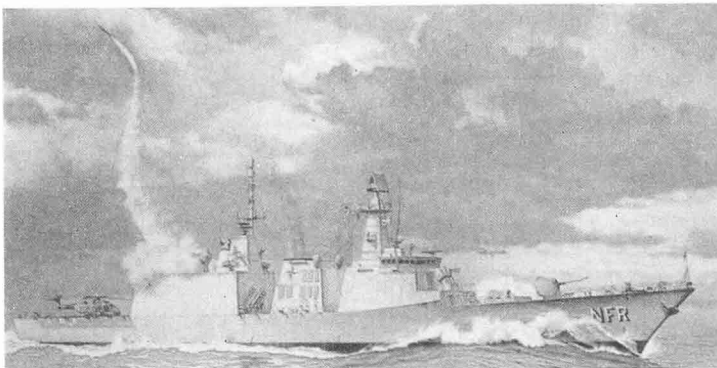
人 員

1995년을 위한 현재의 인원 구조 모형은 45만 6천명의 상비군으로 되어있는 평시 군사력을 요구하고 있다(부가적으로 1만 5천명의 임시 예비훈련병과 21만 4천명의 상비에 비군이 가용함) 이와같은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 징집병 18개월 복무 : 206,000명
- 임시 정규군인 2년 복무 : 17,000명
- 임시 정규군인 4~15년 복무 : 134,500명
- 정규군인(소위 핵심 집단) : 98,500명

18개월간의 복무를 하는 징집병은 개략적으로 2,000년대 까지 유지될 것이다. 2년간 복무하는 임시 정규군인은 2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 ▼ NATO의 「프리제이트 90」은 90년대 후반까지 독일 해군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일 해군은 F-122에 기초한 新型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장기복무를 하는 군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하여 왔던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정규군인을 가용하게하고, 균형잡힌 연령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심집단의 규모는 1988년부터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징집병을 위한 소요비용은 추가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1991년사이에 총 9억 DM가 소요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개략적으로 年間 5억 DM가 소요될 것이다.

새로운 임무 부여

개별군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중복적인 임무를 감소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이와같은 것은 어느정

도의 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적은 資源의 시대에서 계획을立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다.

독일연방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독일연방군의 완전한 합리화계획은 승인된 독일연방군 개념과 중복된 임무를 위한 부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찰 및 첩보에 대한 중복된 임무를 위한 부개념은 완결되었고, 지휘능력에 대한 중복된 임무를 위한 부개념은 현재 충원되고 있다.

방위위원회는 이 두분야에 있어 독일연방군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발견하였다.

○ 지휘 및 통제

개략적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영구적인 시설을 갖고 있는 통일화된 독일연방군 통신체계가 각군에게 가용할 수 있도록 세워질 것이다.

이 통신체계에 연결되는 移動式통신망이 사단 또는 여단과 같은 특정 군부대에 배치될 것이다.

광섬유와 같은 신기술 또는 개별네트워크의 통합화를 용이하게 하는 통합 軍 디지털 네트워크(ISDN)에 적용되는 신기술은 1990년대까지 대규모로 가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가하여 지휘, 통제 및 정

보의 광범위한 표준화와 상호 활용은 계획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각군의 경향은 저지되고 있다.

○ 偵 察

지휘 및 통제와 더불어 정찰은 모든 미래의 독일연방군 계획의 중점사항이 될 것이며, 모든 관련된 발전사항은 구매의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군은 전략 정찰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우주정찰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 않다.

空軍은 각군을 위하여 1차정찰 즉, 정황정찰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은 그들자체의 시스템과 구조를 갖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독일 해군은 더이상 MPA-90 항공기의 통신첩보형 항공기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육군은 ARGUS와 같은 장비획득의 회장에 대하여 절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독일 공군은 원거리 도해 정찰능력을 갖기 위하여 오랜기간동안 계획하여 온 고도 정찰항공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장비의 획득으로 RF-4E 정찰기는 오직 침투 정찰임무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토

軍도 유사한 정찰요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찰자료가 전장지휘소에 즉시 송부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나토국내에서의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다국적 정찰네트워크가 설립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2차정찰(목표정찰과 표정)은 각군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네트워크는 각군간에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될 것이다.

○ 地上軍에 대한 전투

바르샤바 지상군에 대한 전투책임은 육군과 공군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領空관리에 대한 전투로 부터 야기된다.

피아식별 장비없이 대공화기, 대전차용 헬기 및 ALPHA JET와 같은 근접공중지원항공기의 운영은 하나의 무기체계의 활용이 다른 무기체계의 활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깊게 조정되어야만 한다.

각군 참모총장들은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명확한 임무분담에 합의하여 왔다.

육군은 FEBA 넘어 약 100 km까지 전투(2차정찰 포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군은 이것보다도 더 깊은 敵지역에서 교

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책임의 분담은 만약 독일육군이 가용한 수단을 갖고 있고 동맹군이 따르게 된다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육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지고 있는 지역내에서 목표표정과 교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일 것이다. 공군이 더이상 근접공중지원을 수행할 수 없다면, 육군의 전투 및 전투지원 헬기는 전장에서 매우 증대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40km 또는 그 이상의 발사 거리를 갖고 있는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시스템과 75 km 또는 그 이상의 발사거리를 갖고 있는 육군의 대전차 RPV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군은 보다 원거리 목표물에 집중할 것이며, 장거리전장 차단 임무를 유보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근접공중지원활동은 점진적으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LPHA JET 항공기는 더이상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결함만을 제거하는 활동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이 항공기들은 훈련과 정격정비를 하는 용도로서 사용될 것이다.

비행장, 가교 및 지휘소와 같은 목표물에 대한 전투활동은 TORNADO와 같은 유인시스템, 공중발사 또는 지상발사



◀ 偵察用 무인비행기

CL-289

정찰능력 향상을 위해

독일 육군은 사단급에

CL-289를 배치할 것이다.

원거리무기 및 LANCE미사일의 차기탄도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유인시스템은 목표물에 안전하게 근접접근하는 데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항상 증가되고 있기때문에 무인체계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와같은 계획은 미래에 있어서 항공기보다는 목표물에 대한 효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탄약, 병기, 항공기등은 이와같은 목표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防 空

방공계획은 각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전술방공시스템은 공군의 임무로 있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후방지역의 보호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의 상응하는 무기체계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軍의 중복된 방공임무

를 위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면 領空統制의 복잡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동맹국내에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 空 輸

각군을 위한 단거리 공수장비는 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상자수송과 보급수송분야에서 민간용 헬기를 戰時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고려되고 있다.

○ 병 참

의무, 훈련 및 물자정비분야에서 중복적인 비용의 절감방안을 발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기초하여 1년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일 육군을 위한 새로운 구조

각군의 構造계획은 균형화 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육군

에게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군참모는 9월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결하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미래에 있어서 육군의 군사력은 임무와 과제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조직될 것 같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완전편성과 부분편성된 단위부대로 혼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형의 특성을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군 장비와 충원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전방에 있는 사단과 여단은 그들의 임무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기계화부대는 전차작전에 적합한 지형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매우 신속하게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고, 침투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화포를 사용할 수 있는 타부대는 다른지역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 부가적인 기계화부대와

공군기계화부대는 이들지역 뒤에 있는 작전지대에 위치할 것이고, 적 침투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배치하게 될 것이다.

○ 육군영토군은 더욱 깊은 후방의 다른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 영토군의 일부는 완전편성부대의 성격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또한 예비군사력을 훈련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일부부대는 부분편성되어 요구시 완전편성될 수 있을지라도, 앞의 두 작전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부대는 완전편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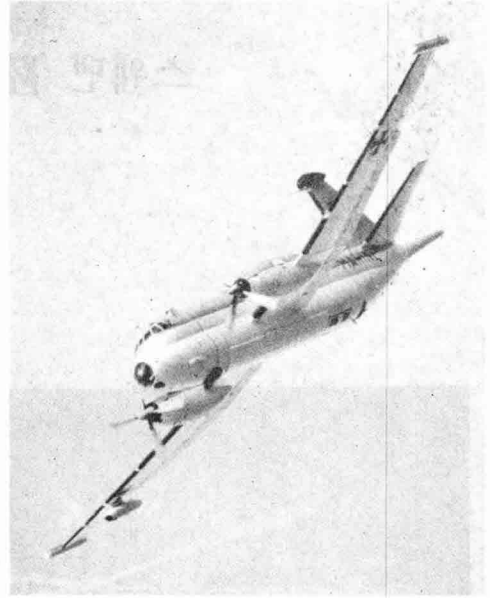
장애물은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지뢰장애물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는 이들 지역에서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재편성은 작전시 육군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일정한 작전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최신의 기술이 지휘 및 통제, 정찰, 무기체계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고, 또한 장애물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봇의 형태일 수도 있는 지능지뢰(Intelligent Mines)에 대하여도 고려를 하고 있다. 재편성은 육군의 장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장갑차량의 수는 증가되기도 하는 감소 될 것이다.

모든 군의 합리화와 통합화 목표와 관련하여 육군을 나토 지휘체계와 국가의 지휘체계

海上 偵察用▶
ATLANTIC 1
항공기



하로 나누어 유지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물론 제기되고 있다.

군사력 증대요인 (Force multipliers)

계획입안자는 방위기술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군사력 증대요인으로 불리우는 기술과 시스템, 즉 CI 및 정찰용 전자장비, 지능원거리 탄약과 독일 육군의 대전차용 RPV와 같은 무기체계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다.

CI, 정찰화력 및 장애물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시스템의 성능개량은 값비싼 신개발품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가용한 장비는 완벽하나, 아직은 가용하지 않은 장비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투력은 증대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제반조치는 합리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재정계획은 많은사람에 의해 지지되고 있을지라도, 현재의 재정계획으로는 독일연방군의 재래식 전투력을 유지하는 할 것이나, 반드시 향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年間 30억~40억 DM에 달하는 추가적인 투자지출과 함께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군은 정치가들로부터 이 추가적인 자금을 요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The Bundeswehr's New Planning」, 〈Military Technology〉, Sep., 1987, pp. 78~83.